

칼빈의 성경 주석을 통해서 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해¹

진지훈
(제기동교회)

[초록]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개혁을 외쳤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또 어떤 것들을 교회의 표지로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이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건강한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일생동안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동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논문은 칼빈의 성경해석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그가 꿈꾸었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조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관이었다.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일

논문투고일 2018.01.31. / 심사완료일 2018.03.02. / 게재확정일 2018.03.05.

1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John Calvin's Theology of the Four-fold Office in His Commentaries from 1540 to 1564 and its Application to the Church of Geneva in the Sixteenth Century*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6)의 제4장 "The Nature of the Church as Shown in Calvin's Commentaries from 1540 to 1564"를 재구성한 것이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회의 기능을 인류에게 영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까지 확장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그들이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칼빈은 교회를 일생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했다. 기독교 강요 초판과 최종판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들을 비교해 보면, 초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라고 정의했고 최종판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자들”이라고 정의했다. 초판의 정의에서 칼빈은 보이는 유형교회와 크리스천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최종판에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선택에 기초한 무형의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칼빈이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칼빈의 교회론에는 참 교회의 두 가지 표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하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의 바른 집행이다. 그러나 칼빈은 참 교회의 표지로 때때로 세 가지(기도, 설교, 그리고 성례)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네 가지(설교, 교제, 성례, 그리고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순수한 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성례, 기도, 교제, 예배와 같은 다른 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 이었다. 설교가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성령이 설교자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다.

칼빈은 또한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셨다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가시적인 지역 교회를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로 이해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은사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이런 은사의 나눔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예배와 예식의 중요성, 설교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칼빈은 성령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기꺼이 은사를 나누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키워드: 존 칼빈, 교회론, 교회의 정의, 교회의 표지, 종교개혁, 건강한 교회

1. 서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등지고 나와서 새로운 개혁교회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교회는 무엇이고 그들이 신학을 전개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의 개혁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종교개혁이 한창 무르익던 시절인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면서 종교개혁의 별로 떠올랐다. 박해를

피해가던 망명길에서 잠시 들렀던 제네바에서 그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가 가져다준 유명세 때문에 제네바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파렐(Guillaume Farel)의 강권함을 받아서 성경교사 자격으로 제네바에 정착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는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 3년 후, 다시 제네바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칼빈은 제일 먼저 서둘러서 교회법령을 제정했고 생애를 마감하는 날까지 제네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법령에 근거에 교회를 다스렸다. 그가 만든 제네바교회의 교회 정치 시스템은 후에 프랑스 개혁교회의 주요 정치 원리가 되었고² 북유럽의 벨직 신앙고백서(1561),³ 네덜란드 돌트 총회(1618-9),⁴ 스코틀랜드 총회(1581)나 웨스트민스터 총회(1644)에서도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⁵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정치적인 기본 원리가 되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 정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대한 칼빈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541년 칼빈이 제네바교회 법령을 처음 만들기 직전 해인 1540년에 그의 첫 성경주석인 로마서 주석이 출판되었고 칼빈은 그 후로도 제네바교회 안에서 자신이 초안한 교회법령을 적용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성경 주석들을 차례로 내놓기 때문에 칼빈의 제네바교회 법령에 담긴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경 주석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며 그의 교회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연구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 성령이 일하시는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초

2 David W. Hall and Joseph H.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7.

3 Philip Benedict, *Christ's Churches Purely Reformed: A social History of Calvinism*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2002), 180.; Hall and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3.

4 Hall and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6.

5 Hall and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9.

점을 맞추어서 칼빈의 교회론을 설명했던 벤자민 밀너(Benjamin C. Milner),⁶ 기독교적 관점에서 칼빈의 교회론을 설명하려 했던 하인리히 퀴스토르프(Heinrich Quistorp)과 귄터 하스(Günther H. Haas),⁷ 칼빈의 교회론의 특징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직분 체계가 주는 리더십의 다양성으로 보았던 엘시에 맥키(Elsie Anne McKee),⁸ 그리고 칼빈의 교회론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프레드 그라함(W. Fred Graham)⁹ 등도 칼빈의 교회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 사이에는 칼빈의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소논문들과 성경 주석은 물론 그가 남긴 설교문까지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리처드 물러(Richard Muller)는 칼빈 신학의 기초를 성경 말씀으로 이해했고¹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생들에게 성경에 접근하는 안내역할을 하는 책일 뿐임을 주장함으로써 칼빈 신학을 논하는데 그의 성경 주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¹ 데이비드 스타인메츠(David C. Steinmetz)는 칼빈 스스로가 『기독교 강요』를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로 보았음을 강조했고¹² 또 칼빈의 성경 주석이나 설교문의 분량이 그의 조직신학적이고 논쟁

6 Benjamin Charles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Brill, 1970).

7 Günther H. Haas, "Calvin, the Church and Ethics," in *Calvin and the Church: Papers Presented at the 13th Colloquium of the Calvin Studies Society, May 24-26, 2001*, ed. David Foxgrover, 72-91 (Grand Rapids, MI: CRC Product Services, 2002) and Heinrich Quistorp,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trans. Harold Knight (London: Lutterworth Press, 1995).

8 Elsie Anne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The Role of Exegetical History in Illuminating John Calvin's Theology* (Geneva: Droz, 1988).

9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71).

10 Richard A.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0.

11 Richard A.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0), 5.

적인 글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칼빈을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성경신학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케리 한센(Gary Neal Hansen)도 칼빈의 성경 주석 작업이 칼빈의 생애에서 가장 중심되는 저술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¹⁴ 그 외에도 파커(T. H. L. Parker)¹⁵, 데이비드 푸켓(David L. Puckett)¹⁶ 등도 칼빈의 신학을 논하는데 있어서 그의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드 홀더(W. Ward Holder)는 칼빈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의 바울서신 주석을 의지했다.¹⁷ 수진 박(Sujin Pak)은 메시아적 시편(Messianic Psalms)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의 경건과 삶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¹⁸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표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의 성경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삶과 신학에서 교회는 무엇이고 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가 한 평생 목회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었는가를 그가 쓴 성경 주석들 속에서 찾아보고 그것들이 오늘날 교회 개혁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2 David Steinmetz, *Calvin in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5), 64.

13 Steinmetz, *Calvin in Context*, 64.

14 Gary Neal Hansen, "Door and Passageway: Calvin's Use of Romans as Hermeneutical and Theological Guide," in *Reformation Readings of Romans*, eds. Kathy Ehrensperger and R. Ward Holder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8), 77.

15 T. H. 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1);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KY: T&T Clark, 1993).

16 Davi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Columbia Series in Reformed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17 R. Ward Holder, *John Calvin and the Grounding of Interpretation: Calvin's First Commentaries* (Leiden: Brill, 2006).

18 G. Sujin Pak, *The Judaizing Calvin: Sixteenth-Century Debates over the Messianic Psal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0), 78.

II. 교회의 정의와 목적

교회에 대한 칼빈의 생각이 제일 먼저 드러난 곳은 1536년 출판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다. 여기서 칼빈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¹⁹ 여기서 칼빈은 교회를 정의한 이후 신명기 4:2과 12:32, 잠언 30:6, 그리고 요한계시록 22:18-19을 특별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했다.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 말을 덧붙인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칼빈은 신명기에 있는 이와 같은 구절들을 구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것도 철저히 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신명기 말씀들 외에도 칼빈은 잠언 30:6과 계시록 22:18-19도 인용했는데 이 구절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동일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칼빈은 이 구절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이해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만약 어떤 회중이 그 자체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랴도 더한 것이 있다면 그 회중을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칼빈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했다. 교회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이라는 것이다.²⁰ 교회의

1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Grand Rapids, MI: Eerdmans, 1986), 194.

2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칼빈의 생각은 그의 첫 성경 주석인 로마서 주석(1540)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로마서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상속권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었다.²¹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상속권을 주셔야만 그들이 비로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9:4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들에게는 양자 됨이 있다.”는 표현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해했다.²²

칼빈이 로마서 다음으로 쓴 성경주석은 고린도전서 주석(1546년)인데, 여기서도 칼빈은 교회 구성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점을 두었다. 고린도전서 1:2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칼빈은 바울이 이야기한 “성화”를 구별됨의 의미로 이해했다. 이 구별은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성화의 근거는 인간의 뛰어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²³ 성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지 사람의 능력의 출중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결코 버려질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²⁴

『기독교 강요』(1559)에서 칼빈은 교회를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Ford Lewis Battles, Vol. 2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V. i. 2.

21 *Com. on Romans* 9:4.

22 *Com. on Romans* 9:4.

23 “The ground of sanctification is the call of God, inasmuch as God has chosen them: meaning, that this depends on his grace, not on the excellence of men.”
Com. on 1 Corinthians 1:2.

24 *Com. on 1 Corinthians* 1:9.

유형(가시적)교회 다른 하나는 무형(불가시적)의 보편적 교회이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유형교회의 구성원은 시대와 장소에 의해서(geographically and temporally) 제한된다. 더구나 유형교회 안에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칼빈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교회인 무형의 보편적 교회였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칼빈에게 유형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서, 양육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누구도 죄의 용서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²⁵ 이 땅의 유형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칼빈은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칼빈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를 인간 구원의 방편으로 이해했던 것이다.: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²⁶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유형의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²⁷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떼어서 생각할

²⁵ *Inst.* 4.1.7.

²⁶ 칼빈은 'extra ecclesiam nulla salus.'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뒤 따라 나오는 『기독교 강요』 2.3.1의 표현을 보면, 이 표현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light of God will arise in the church alone; and leaves only shadows and blindness outside the church." 데니스 조우얼스(Dennis W. Jowers)에 의하면 칼빈은 이 고전적인 기독교적 고백 'extra ecclesiam nulla salus'를 『기독교 강요』 4.1.8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언했다. "He has, moreover, set off by plainer marks the knowledge of his very body to us, knowing how necessary it is to our salvation." Jowers, "In What Sense Does Calvin Affirm 'Extra Ecclesiam Nulla Salus'?" 50.

²⁷ *Inst.* 3.20.20.

수 없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구원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구원의 선결요건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유형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주석(1548)에서 칼빈은 유형교회를 설명할 때 어머니 비유와 신부 비유를 사용했다. 에이미 플란팅가(Amy Flantinga)가 이야기한 것처럼 칼빈이 교회를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본 것은 칼빈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 따른 것이다.²⁸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불러 모으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 칼빈은 교회의 양육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 비유를 사용했다.²⁹ 크리스천들은 교회라는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고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신앙이 자란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받고 삶의 인도를 받는다.³⁰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형교회의 구성원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출생 이후에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³¹ 그리스도인은 젖을 먹는 유아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다. 왕이나 농사꾼이나 차이가 없다.³²

28 Amy Flantinga Pauw, "The church as Mother and Bride in the Reformed Tradition: Challenge and Promise," in *Many Voices, One God: Being Faithful in a Pluralistic World*, ed. Walter Brueggemann and George W. Stroup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22.

29 *Com. on 1 Ephesian* 4:12.

30 *Inst.* 4.1.4.

31 *Com. on Ephesians* 4:14.

32 *Com. on Ephesians* 4:12.

사람들은 성숙할 때까지 또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³³

칼빈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신부 비유를 사용했는데 교회는 언제나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생각이 이 비유에 드러나 있다.³⁴ 교회는 태초부터 존재해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 칼빈의 히브리서 주석(1549)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순결하게 보존되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보편적 교회 안에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보편적 교회에 대한 칼빈의 생각이 드러난다.³⁵

데살로니가전서 1:1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적고 있는데, 칼빈은 데살로니가전서 주석(1550)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이 표현 속에서 참 되고 합법적인 교회의 정의를 찾았다. 교회는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 아래,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연합하여 세워진다는 것이다.³⁶ 같은 해에 쓰여진 데살로니가후서 주석(1550)에서도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이라는 바울의 표현에 대해서 교회를 믿음의 깃발아래 함께 모인 사람들로 정의했다.³⁷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그의 이사야서 주석(1551)에서 드러난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사4:3) 하고 선언했을 때, 칼빈은

³³ *Inst.* 4.1.1.

³⁴ *Com. on Ephesians* 5:27.

³⁵ John Calvin, “The Argument,” on *Com. on Hebrews*, xxx.

³⁶ *Com. on 1 Thessalonians* 1:1.

³⁷ *Com. on 2 Thessalonians* 1:1.

이 예언을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해석했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³⁸ 따라서 칼빈이 생각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라고 생각했다. 만약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세상에는 주님의 진리도 또한 믿음도 존재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도 헛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³⁹

요한복음 2:15-16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온다.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1553)에서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고대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 건물을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대 성전에 대해서 말해진 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는 것이 고대 성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⁴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순결하게 보존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창세기 주석(1554)을 보면, 칼빈은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의 전형(a prototype)으로 이야기한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와 믿음의 계보를 교회가 계승한 것으로 이해했다.⁴¹ 칼빈은 노아를 교회의 거룩한 족장(the holy patriarch of the Church)이라고 불렀고⁴² 야곱을 교회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Church)라고 불렀다.⁴³ 야곱이 교회의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어떤 공로로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선택하신 결과였다.⁴⁴ 칼빈은 야곱이 교회의 일원이 된

38 *Com. on Isaiah* 4:3.

39 *Com. on Isaiah* 2:1.

40 *Com. on John* 2:16.

41 *Com. on Genesis* 5:3.

42 *Com. on Genesis* 9:22.

43 *Com. on Genesis* 25:23.

것을 “입양”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야곱의 입양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⁴⁵ 하나님의 선택 없이 고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아니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말했다.⁴⁶

칼빈은 또 아브라함의 집을 교회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이해했다.⁴⁷ 아브라함의 집과 교회 사이에는 알레고리적인 유사점이 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은 매인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한 여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다. 같은 원리로, 고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양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멸하는 가짜 제자들(the hypocritical disciple)이다.

다니엘서 주석(1561)에서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단12:1)을 주석할 때, 칼빈은 이 구절을 일종의 교회의 정의로 받아들였다. “이 구절 끝에서 천사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⁴⁸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한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란에 대해서도 칼빈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참된 교회에 닥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천사가 이렇게 제한적인 표현을 한 것은 육을 따라서 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만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말했다.⁴⁹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참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들은 결코 타락하거나 변절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름뿐

44 *Com. on Genesis 25:27.*

45 *Com. on Genesis 48:1.*

46 *Com. on Genesis 25:23.*

47 *Com. on Genesis 21:12.*

48 *Com. on Daniel 12:1.*

49 *Com. on Daniel 12:1.*

인 형식적인 교회로부터 참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칼빈은 그의 일생 동안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칼빈이 생각할 때 교회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칼빈은 교회의 기능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교회의 영역(경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확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신앙과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III. 참된 유형 교회의 표지들

조셉 홀(Joseph H. Hall)은 교회의 본질(the nature of church government)을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료다.”⁵⁰ 만약 그렇다면, 교회 조직(church government)에 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성경적 이해에 있어서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50 “The marks of the church are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the true church.” Joseph H. Hall, “History and Character of Church Government,” in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ed. Hall and Hall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4.

『기독교 강요』 초판(1536)을 쓸 때 칼빈은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에게 헌정사를 썼다. 여기서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인 집행이었다.⁵¹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빈이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한 두 가지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후 나온 『기독교 강요』 여러 개정판들에서도 이 헌정사는 새로 쓰이지 않았고 조금도 개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칼빈이 생각한 교회의 표지는 이 두 가지뿐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칼빈은 정작 『기독교 강요』 초판(1536)의 본문에서는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믿는 사람들의 회중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로서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동 기도,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집행 3가지 요소를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한 것이다.⁵² 칼빈에게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 인가, 세 가지 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칼빈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선포가 참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권(ecclesiastical power)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빈은 교회는 복음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⁵³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설교를 제정하셨다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늘 주목했다.⁵⁴

칼빈은 시대마다 성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지적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말씀과 더불어 다양한 성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확인하셨다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 보면, 그는 에덴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를 위한 성례라고 말했다. 또 홍수 후에 나온 무지개는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한 성례였다.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5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9.

5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73.

5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185.

5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21.

위한 성례였다.⁵⁵ 구약교회 안에서 이런 성례들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에 있어서 성례는 무엇일까? 칼빈은 마태복음 28:19과 26:26-28을 근거로 세례와 성찬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례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⁵⁶ 칼빈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어울리는 성례로 받아들였다. 벤자민 밀러(Benjamin Milner)에 의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증과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교회의 일반적인 이고 영원한 성례다.⁵⁷

고린도전서 주석(1546)에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빈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의 표지와는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기본적인 교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였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분명히 인식했다. 물론, 고린도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성찬을 더럽혀서 성찬의 바른 시행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다. 고린도교회가 속한 사회는 물론 교회 자체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치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단순성을 경멸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했다. 그들은 또 사역자들의 야망에 따라서 여러 당파로 나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다.

칼빈은 어떤 것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교회라고 불렀는지를 설명했다. 첫째, 그들 가운데 한 하나님이 경배되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셋째, 그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5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93.

5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93.

57 Benjamin Charles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Brill, 1970), 115.

신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완전히 오염되지 않는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 개혁자 칼빈의 마음속에 이 네 가지 요소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핵심의 교리들이었다. 그러나 칼빈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떤 것이 참 교회의 표지들이라고 꼭 짚어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칼빈은 바울이 이야기한 참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재진술 하면서 언제든지 기본 교리들이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그곳에 교회는 존재한다고 말했다.⁵⁸ 고린도후서 주석(1547)에서도 칼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안에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가 교회로서의 이러한 진실한 표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했다고 변함없이 진술했다.⁵⁹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설교는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들 안에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수단인 것이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확장되었다(행 2:37). 많은 나라들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변되었다.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칼빈은 고린도교회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른 교리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졌다고 지적했다.⁶⁰

1552년에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 제1권을 출판했다. 사도행전 2:42에서 누가가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4가지 요소로 설명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가 그것들이었다. 이 구절로부터 칼빈은 질서가 잘 잡힌 교회의 네 개의 분명한 표지를 이야기했다. 말씀의 선포, 성도들 사이의 교제, 성찬, 그리고 공적인 기도가 그것들이었다.⁶¹

⁵⁸ *Com. on 1 Corinthians* 1:2.

⁵⁹ *Com. on 2 Corinthians* 1:2.

⁶⁰ *Com. on 1 Corinthians* 3:11.

⁶¹ *Com. on Acts* 2:42.

칼빈은 이 네 가지 표지 중에서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 평가했다. 설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다. 이에 비해 성찬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교리에 대한 확증이었다. 성도의 교제와 공적인 기도 역시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그대로 잘 설교되었을 때 따라오는 열매 또는 결과로 취급했다.⁶²

스캇 매니찌(Scott Manetsch)는 이야기하기를,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성숙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⁶³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성숙을 주신다. 물론, 칼빈은 설교가 하나님의 위엄을 모두 담아내기에 부족한 인간적인 연약한 도구라는 것을 잘 알았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낮추지 않으시고 또 성령이 그 안에 일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설교는 어떤 가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설교에서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⁶⁴ 수잔 카렌트-눈(Susan Karant-Nunn)은 “설교가 없으면, 종교개혁도 없다.” 하는 표현을 통해 16세기 독일 종교개혁에서 설교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⁶⁵ 이것은 제네바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제네바 종교개혁에서도 새로운 교회 법령을 만들고 제네바 사람들 속에 새로운 종교적 윤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⁶⁶

칼빈은 그의 저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인간의 언어의 중요성에

62 *Com. on Acts 2:42.*

63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146.

64 Joshua Ralston, “Preaching Makes the Church: Recovering a Missing Ecclesial Mark,” in *John Calvin's Ecclesiology: Ecumenical Perspectives*, ed. Gerard Mannion and Eduardus Van der Borgh (New York: T&T Clark, 2011), 133.

65 Susan C. Karant-Nunn, “Preaching the Word in Early Modern Germany,” in *Preachers and People in the Reformations and Early Modern Period*, ed. Larissa Taylor (Leiden: Brill, 2001), 194-95.

66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147.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칼빈은 1541년에 성찬에 대한 짧은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로 세우신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되는 것이다.”⁶⁷ 칼빈은 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용한 사역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하고 이사야서 주석(1551)에서 말했다.⁶⁸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설교는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이었다.⁶⁹

사도행전 주석에서 칼빈이 이야기한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표지는 성례의 집행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했다. 교회 안에서 성찬의 역할은 말씀의 선포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1546)과 고린도후서 주석(1547)에서 칼빈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부속물(appendage)로까지 이야기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8:19, 마가복음 16:15,) 가라, 전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 그는 가르침이 언제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가르침에 단순히 추가물이나 부록으로 연결시켰다.⁷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하나님과의

⁶⁷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 and Only Savior Jesus Christ,”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and trans. Rei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156-7.

⁶⁸ *Com. on Isaiah* 50:10.

⁶⁹ Ronald S. Wallace, “The Preached Word as the Word of God,”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Eugene, OR: Wipf and Stock, 1998), 232.

⁷⁰ “For when Christ says to the Apostles, (Matthew 28:19, Mark 16:15,) Go, preach and baptize, he connects baptism with teaching simply as an addition or appendage, so that teaching always holds the first place.” *Com. on 1 Corinthians* 1:17.

화해가 우리 양심에 확증된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가 성례 위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례는 그것들만 따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과 연결하여 부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⁷¹

『기독교 강요』(1559)에서도 칼빈은 “말씀이 없이는 성례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⁷² 그렇기 때문에 파커(T. H. L. Parker)가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들려지는 성례다.”⁷³ 하고 말한 것은 결코 틀리지 않은 표현이다. 사람들은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

성례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좀 더 발전된다. 칼빈은 크리소스톰과 터툴리안의 해석에 기초해서 성찬의 기원을 사랑의 만찬으로 이해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차별도 없이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성찬을 표현했다.⁷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실 때, 단순히 기념하는 예식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만찬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다. 사랑의 만찬이기에 거기에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사치나 방종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성찬에 대해서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이 행했던 밤의 축제처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안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⁷⁵

칼빈은 결코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을 성찬의 원형으로 생각하지 않았

71 “I do not, indeed, deny, that the grace of Christ is applied to us in the sacraments, and that our reconciliation with God is then confirmed in our consciences: but, as the testimony of the Gospel is engraven upon the sacraments, they are not to be judged of separately by themselves, but must be taken in connection with the Gospel, of which they are appendages.” *Com. on 2 Corinthians* 5:20.

72 *Inst.* 4.17.39.

73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48.

74 *Com. on 1 Corinthians* 11:21.

75 *Com. on 1 Corinthians* 11:23.

다. 오히려 그는 이 둘을 비교했다. 고린도전서 5:7을 다름에 있어서, 칼빈은 성찬과 유월절 만찬은 모두 제물(a sacrifice)과 신성한 만찬(a sacred feast)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고 말했다.⁷⁶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제사의 관점은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것은 잔치의 개념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5:8을 주석할 때 이것에 관해서 “영적인 잔치”(the spiritual feast)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다.⁷⁷ “영적인 잔치”라는 칼빈의 용어 사용은 성찬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단서는 그가 고린도전서 11:23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한 “영적인 향연”(the spiritual banquet)이다.⁷⁸ 칼빈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희생으로 어린양을 잡은 후에 7일 간의 잔치를 즐겼던 것처럼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잔치를 축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찬의 첫 번째 요소는 감사기도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찬의 시작에 감사기도를 올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⁹ 성찬의 두 번째 요소는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⁸⁰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열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셨다. 잔도 떡과 다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 26:27). 칼빈은 만약 모든 믿는 사람이 떡과 잔에 서로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찬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이 잔을 사제들에게만 제공한 것을 겨냥한 질책이었다. 성찬의 세 번째 요소는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눅 22:20) 하고 말씀하셨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⁷⁶ Com. on 1 Corinthians 5:7.

⁷⁷ Com. on 1 Corinthians 5:8.

⁷⁸ Com. on 1 Corinthians 11:23.

⁷⁹ Com. on 1 Corinthians 11:24.

⁸⁰ Com. on 1 Corinthians 11:24.

속에 그의 은혜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엄숙한 예식으로 성찬을 사용하였다.⁸¹ 성찬의 네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기억)하는 것이다.⁸²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전 11:25)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⁸³

칼빈은 세례를 성찬과 함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할 성례로 받아들였다. 노아에게 무지개처럼, 아브라함에게 할례처럼 세례는 동일한 방식으로 세례 받는 사람에게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성례다. 칼빈의 이해 속에서 세례는 언약으로 들어가는 성례다. 그리고 성찬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성례다.⁸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는 유비를 이용하여 세례를 믿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⁸⁵

『기독교 강요』(1559)에서 칼빈은 참 교회의 표지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⁸⁶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1536)의 헌정사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⁸⁷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칼빈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것과 성례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행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⁸⁸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때때로 두 개의 표지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 개의 표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네 개의 표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두 가지로

81 *Com. on 1 Corinthians* 11:25.

82 *Com. on 1 Corinthians* 11:24-25.

83 *Com. on 1 Corinthians* 11:26.

8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93.

85 *Com. on 1 Corinthians* 12:13.

86 *Inst.* 4.1.10.

87 Calvin,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9-31. For the marks of the church as purely preaching of God’s Word and the lawful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see 24-25.

88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100.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성례가 아닌 교리와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칼빈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칼빈은 치리를 교회의 표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⁸⁹ 칼빈은 결코 교회의 표지를 편협하게 몇 가지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거나 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표지에 대한 어떤 혼란도 없이 그의 분명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순수한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도 빼 놓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 외에 성찬, 기도, 교제, 예배 등과 같은 교회의 다른 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의 선포인 설교가 칼빈의 교회론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진짜 사역자임을 인지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 사역자들의 역할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외부 사역자들로 받아들였다. 1537년에 쓴 “말씀 사역과 성례와 관련된 교리의 요약”(Summary of Doctrine concerning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s)에서 칼빈은 인간 설교자는 귀에 들리는 음성적인 말씀을 제공하는 외적인 사역자지만 성령은 실제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통하는 내적인 사역자라고 말했다.⁹⁰ 이사야서 주석(1551)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⁸⁹ Jowers, “In What Sense Does Calvin Affirm ‘Extra Ecclesiam Nulla Salus’?” in *John Calvin’s Ecclesiology: Ecumenical Perspectives*, ed. Mannion and Van der Borght (New York, NY: T&T Clark, 2011), 66. See the end note 15.

⁹⁰ Calvin, “Summary of Doctrine Concerning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173.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그의 도구로 고용해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대리기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⁹¹

IV. 교회의 일치

칼빈의 교회론은 공교회적(catholic)이고 보편적(universal) 교회론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의 일치에 관한 그의 분명한 생각을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찾을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기 2년 전에 1534년에 “영혼 수면론 논박”(Psychopannychia)이라는 논문을 썼다. 당시 프랑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하 개혁교회들에 설교했던 칼빈이 제대로 교육받은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목회적 필요에서 쓴 책이었다.⁹² 이 책에는 칼빈이 친구에게 쓴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문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일치됨이 없다는 것을 안다.”⁹³ 2년 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를 설명할 때, 교회의 공교회성을 하나 됨의 측면에서 설명했다.⁹⁴

교회적인 일치와 공교회성은 한 평생 동안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이었다.

91 “The word goeth out of the mouth of God in such a manner that it likewise “goeth out of the mouth” of men: for God does not speak openly from heaven, but employs men as his instruments, that by their agency he may make known his will.” *Com. on Isaiah*, 55:11.

92 김진홍, “종교개혁을 향한 칼빈의 열정,” 『CTMNews』, 2016. 1. 15, <http://ctmnews.kr/news/view.php?no=359>.

93 John Calvin, “Psychopannychia,” in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Vol. 3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9), 416.

9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58.

우리는 그것을 그의 『기독교 강요』(1559)에 나타난 진술로 증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갈기갈기 찢기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교회는 두 개 혹은 세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공교회적(catholic) 또는 보편적(universal)이라고 불린다. [참고. 고린도전서 1:13]”⁹⁵

칼빈의 교회론은 지구상의 가시적 지역 교회보다는 불가시적인 보편적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칼빈은 가시적 지역 교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칼빈은 가시적 지역 교회를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the community for sharing gifts)로 이야기했다.⁹⁶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교회는 이런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 불순종으로 오염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⁹⁷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개혁운동이 교회를 찢어 놓았고 교회의 일치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제이콥 사도렛(Jacob Sadolet)은 1539년에 제네바 시 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쓴 편지에서 교회의 일치를 깨뜨렸다는 혐의로 종교개혁을 비판했다.⁹⁸ 이런 비판에 대해서 칼빈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어거스틴, 키프리안, 크리스소스톰 등과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항상 개혁되어왔다고 주장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을 변호했다.⁹⁹ 개혁하지 않은 교회는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⁹⁵ Calvin, *Inst.* 4.1.2.

⁹⁶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1536, 193.

⁹⁷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154.

⁹⁸ Jacob Sadolet, *Sadolet's Letter to the Senate and the People of Geneva* in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1, 19.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칼빈의 생각을 그의 로마서 주석(1540)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로마서 1:11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말했다. 이 진술에 근거해서 칼빈은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크리스천일지라도 예외 없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⁰⁰ 칼빈이 생각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¹⁰¹

칼빈은 공적인 예배에서 세례나 성찬 같은 예식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공적 예배와 의식들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하다. 칼빈은 공적 예배와 의식의 중요성을 로마서 주석(1540)에서 지적했다. 공적인 예배 행위와 의식들은 크리스천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시대 할례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분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의식들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래서 칼빈은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의식들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¹⁰²

이상적으로는 이 땅의 유형교회는 반드시 불가시적 우주적 교회의 한 작은 부분이어야 한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유형교회에는 선택된 사람들 사이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칼빈은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인식했다.¹⁰³

99 John Calvin, "Reply by John Calvin to the Letter by Cardinal Sadolet to the Senate and People of Geneva,"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231 or in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1, 38.

100 *Com. on Romans* 1:11.

101 *Com. on Romans* 1:12.

102 *Com. on Romans* 3:2.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1546)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 됨에 대한 칼빈의 강조를 찾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0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라.”고 권고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사이의 일치와 조화를 요청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안녕은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일치와 조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원리다. 칼빈은 이것을 믿음과 신앙고백 안에서 교회의 하나 됨으로 해석했다. 그는 교회의 하나 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46절에서 누가가 한 “마음을 같이하여”이라는 표현을 차용했다.¹⁰⁴ 만약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즉시 싸움으로 소용돌이치게 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당시 이미 고린도교회는 불일치에서 오는 심각한 분쟁을 경험했었다.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불일치의 이유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랑하는데서 온 것이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모든 성도들을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¹⁰⁵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벤자민 밀너(Benjamin Milner)는 칼빈의 생각 속에서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뿐 아니라 성화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도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했다.¹⁰⁶

교회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도 히브리서 주석(1549)에서 우리는 치리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유형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대에 걸쳐 항상 오류를 지녀왔다. 칼빈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가 항상 떠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103 *Com. on Romans* 1:17.

104 *Com. on 1 Corinthians* 1:10.

105 *Com. on 1 Corinthians* 1:10.

106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182.

이런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했다.¹⁰⁷ 그렇다고 이런 그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죄를 묵인하거나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류들은 교회를 상처 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과 바른 교리를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사의 사명은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중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지를 지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때때로 목사의 설교가 회중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을 교정하는데 있어서 설교와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설교와 교육에 치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회 조직(church government)은 치리를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칼빈은 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훈련과 규칙의 멍에 아래 묶어 두셨다.”¹⁰⁸ 칼빈은 교회의 치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아버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징계를 참지 않으신다는 것이다.¹⁰⁹ 이런 이유로 칼빈은 사람들이 교회의 치리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거절하는 것임을 강조했다.¹¹⁰ 칼빈은 히브리서 주석(1549)에서 교회 조직(church government)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¹¹¹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교회법령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제네바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

¹⁰⁷ *Com. on Hebrews* 3:9.

¹⁰⁸ *Com. on Hebrews* 12:4.

¹⁰⁹ *Com. on Hebrews* 12:7.

¹¹⁰ *Com. on Hebrews* 12:7.

¹¹¹ *Com. on Hebrews* 5:4.

다. 칼빈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없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조화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갈등이다. 창세기 주석(1554)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칼빈은 비뚤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함이 그의 아버지의 술 취함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할 기회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¹¹²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들의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그들의 형제 함이 아버지를 비웃는 것을 보면서 극도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관대함으로 그것을 잘 극복했다.

만약 교회의 직분자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칼빈은 공적인 조롱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칼빈은 결코 교회 지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교회의 지도자가 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지도자를 비난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깬다면 그 죄는 지도자가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빈의 생각에 노아가 술에 취했던 것은 추악하고 혐오스런 죄였다. 노아의 술 취함은 비난받아 마땅한 부끄러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의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를 조롱했을 때,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그의 아들을 함을 저주했다. 칼빈은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노아가 그의 잘못을 회개한 후에 참으로 겸손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칼빈은 노아가 신적인 영감으로 그의 아들을 저주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¹¹³ 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족장을 조롱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이다.

¹¹² *Com. on Genesis 9:22.*

¹¹³ *Com. on Genesis 9:24.*

칼빈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가정 안에서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 역시 교회 안에서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칼빈은 노아가 그의 아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감당해야 할 슬픔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자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아들을 단호하게 저주해야만 했다.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 끝에 칼빈은 경건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사악한 자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¹¹⁴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한 석의에서 칼빈은 교회 안에서의 치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교회 안에서의 치리는 공동체의 일치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시대에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온 세상에 퍼졌을 지라도 교회를 보존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시대에 교회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¹¹⁵

다니엘서 주석(1561)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보호자라고 고백했다. 어떤 어려움이나 혼동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확신했다.¹¹⁶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간 사역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심을 확신했다.

교회 안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도 믿음으로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특별한 기능을 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역할을

114 *Com. on Genesis 9:22.*

115 *Com. on Genesis 9:28.*

116 *Com. on Daniel 12:1.*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통치 아래서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목사를 위한 규정에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심방하는 일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넣었다.¹¹⁷

나중에 그의 죽음 1년 전인 1563년에 출판된 예레미야서 주석에서 칼빈은 교회 안에 유아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칼빈은 사람들에게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런 습관들은 그들을 오랫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유아 때부터 조기 교육이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¹¹⁸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이 그의 일생동안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것과 또 교회의 표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론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핵심 원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칼빈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라고 생각했다. 칼빈은 또 교회가 성도들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 교회 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키고자 노력했다. 둘째, 칼빈은 성령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라는 임무를 맡은 목회자들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회의 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 중심에는 늘

117 *CO*, 10, 118(=Les ordonnances ecclesiastiques de 1561).

118 *Com. on Jeremiah* 35:12-1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칼빈은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어서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신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은사를 나누는 것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은사를 나누는데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 법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직분인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중직을 제정하고 그들의 은사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방식을 제정했다.¹¹⁹ 마지막으로 칼빈은 형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와 예식, 치리, 그리고 유아들의 조기 교육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예식에 참여를 강조했고 제네바 아카데미 같은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도 세움으로써 제네바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정치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과연 칼빈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그 제도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될까?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기관으로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성령의 인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또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섬김의 원리가 성도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짐으로써 교회가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

119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중직에 대한 칼빈의 이해 변화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John Calvin's Theology of the Four-fold Office in His Commentaries from 1540 to 1564 and its Application to the Church of Geneva in the Sixteenth Century*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6)의 제5장 "Church Offices Shown in Calvin's Commentaries From from 1540 to 1564"를 참조하라.

[Abstract]

**The Nature of the Church as Shown in Calvin's
Commentaries from 1540 to 1564**

Ji Hoon Jin (Jegidong Church)

The reformers in the sixteenth century aimed to establish a healthy church.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ir definition of the church and marks of the church in order to understand what was the healthy church in their minds. It was essential for John Calvin to establish a healthy church during his ministry in Geneva. This article shows the healthy church Calvin dreamed researching his definitions and marks of the church shown in his commentaries. It also suggests the way today's church follows in order to establish a healthy church.

For Calvin, the church is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is world because the church is the only institution on earth for human salvation and the foundation which supports this world. Calvin did not limit the function of the church in guiding people to salvation. He extended the boundaries of the church to society in which God's people lived together. Calvin believed that God's people can sanctify the society only when the church nurture them by the Word of God.

Calvin defined the church in a variety of ways during his career. Comparing his two definitions of the church shown in the first edition(1536) and the last edition(1559) of the

Institutes, the former was an “assembly of people who received the promise of God and gathered together,” and the later was “all God’s elect.”

In my reflection, Calvin focused more on the visible church and the personal Christian lives of believers in the former definition, but he focused on the invisible church based on God’s secret election in the later definition. However, he always put “God’s election” at the center of the definitions of the church.

Generally, people understand that there are two marks of the church in Calvin’s ecclesiology: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and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However, Calvin sometimes stated three marks (prayer, preaching, and the sacraments) or four marks (preaching, fellowship, the sacraments and prayer) of the true and natural church. The preaching of the pure doctrine delivered by the apostles as the word of God was essential to them. Other marks like the sacraments, prayer, fellowship, and worship of God were the result of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Preaching plays a vital role in Calvin’s ecclesiology. Calvin believed that the Holy Spirit consecrates the church by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He also believed that the Holy Spirit distributes various gifts to all saints so that they can help others by sharing these gifts within the church. From the beginning of his career, for this reason, Calvin understood the local visible church as a community for sharing gifts.

Furthermore, he recognized that sharing gifts is very important for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people's growth in faith is essential for sharing gifts. For this reason, Calvin stressed the importance of formal public worship services and rituals, of preaching and early education, and of discipline. However, Calvin also did not overlook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people's growth and sharing gifts, because people are willing to share their gifts with others only when the Holy Spirit reigned over them. Calvin thought that the church is a unique organization to help saints grow.

Key Words: John Calvin, Ecclesiology, Marks of the Church, Reformation, The Healthy Church

[참고문헌]

- Benedict, Philip. *Christ's Churches Purely Reformed: A Social History of Calvinis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Calvin,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ited and translated by J. K. S. Rei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6.
- _____.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 Baum, Ed. Cunitz, and E. Reuss. 59 vols. Brunswick: C. A. Schwetzk & Son, 1900.
-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Grand Rapids, MI: Baker, 2009.
- _____. *John Calv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ited by John Dillenberger. Missoula, MT: Scholars, 1975.
- _____.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ited and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7 vol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9.
-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VA: John Knox, 1971.
- Haas, Günther H. "Calvin, the Church and Ethics." In *Calvin and the Church: Papers Presented at the 13th Colloquium of the Calvin Studies Society, May 24-26, 2001*, edited by David Foxgrover, 72-91. Grand Rapids, MI: CRC Product Services, 2002.
- Hall, David W., and Joseph H.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 Hansen, Gary Neal. "Door and Passageway: Calvin's Use of Romans as Hermeneutical and Theological Guide." In *Reformation Readings of Romans*, ed. Kathy Ehrensperger and R. Ward Holder.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8.
- Holder, R. Ward. *John Calvin and the Grounding of Interpretation: Calvin's First Commentaries*. Leiden: Brill, 2006.
- Jowers, Dennis W. "In What Sense Does Calvin Affirm 'Extra Ecclesiam Nulla Salus'?" In *John Calvin's Ecclesiology: Ecumenical Perspectives, Ecclesiological Investigations Series*, edited by Gerard Mannion and Eduardus Van der Borght, vol. 10, 50-68.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11.
- Karnat-Nunn, Susan C. "Preaching the Word in Early Modern Germany." In *Preachers and People in the Reformations and Early Modern Period*, edited by Larissa Taylor, 193-220. Leiden: Brill, 2001.
- Manetsch, Scott. M.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2.
- McKee, Elsie Ann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The Role of Exegetical History in Illuminating John Calvin's Theology*. Genève: Droz, 1988.
- McKim, Donald K.,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1998.
-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 Muller, Richard A.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NY: Oxford University, 2003.
- _____. *The Unaccommodated Calv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0.

- Pak, G. Sujin. *The Judaizing Calvin: Sixteenth-Century Debates over the Messianic Psal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0.
- Parker, T. H. L.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71.
- _____.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2.
- Pauw, Amy Flantinga. "Practical Ecclesiology in John Calvin and Jonathan Edwards." In *John Calvin's Ecclesiology: Ecumenical Perspectives*, ed. Gerard Mannion and Eduardus Van der Borgh, 107-124. New York: T&T Clark, 2011.
- Puckett, Davi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5.
- Quistorp, Heinrich.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Translated by Harold Knight. London: Lutterworth, 1995.
- Ralston, Joshua. "Preaching Makes the Church: Recovering a Missing Ecclesial Mark," in *John Calvin's Ecclesiology: Ecumenical Perspectives*, edited by Gerard Mannion and Eduardus Van der Borgh, 125-142. New York: T&T Clark, 2011.
- Steinmetz, David C. *Calvin in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5.
- Wallace, Ronald S. "The Preached Word as the Word of God."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ited by Donald K. McKim, 231-243. Eugene, OR: Wipf and Stock, 1998.
- 김진홍. "종교개혁을 향한 칼빈의 열정," 『CTMNews』, 2016. 1. 15, <http://ctmnews.kr/news/view.php?no=359>.